국립공원 숲유치원 수업 개요서			
성 명	이지선		
해설대상	유아 6~7세 20명		
주 제	가을을 준비하는 백양골의 모습		
활동목표	백양골의 가을을 준비하는 도토리거위벌레와 백양꽃 알기		
준 비 물	사진자료 및 교구재	소요시간	60분
유의사항	자연보호 및 안전사항 전달		

진 행 순 서

단 계	활동명	주 요 내 용	배정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주제소개 및 유의사항	- 프로그램 주제 소개 - 안전사항 등 주의사항 전달	20	
전개	백양골의 가을 준비	- 가을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 갈참나무 밑에 떨어진 나뭇잎은 누가 그랬을까요?	10	사진자료 교구재
	백양꽃에 대해 알아보아요	- 백양골에서 처음 발견된 백양꽃 - 상사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10	사진자료 교구재
	가을에 만나는 야생화	- 주위에서 흔히 만나는 닭의 장풀 - 뻐꾸기를 닮은 뻐꾹나리, 고마운 고마리 등.	10	사진자료 교구재
마무리	마무리 및 주제전달	-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해보기	10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맑은 연못 안에 비치는 백학봉처럼 아름다운 해설사 이지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가득 담고 있는 연못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진자료)
이렇게 아름다운 연못처럼 물이 항상 모여 있는 곳을 우리는 습지라고 합니다. 습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조용하지만 이 물속에는 많은 생물들이 서로 어울려가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습지생태계로 탐험을 통해 어떤 친구들이 살고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탐험을 떠나기 전에 선생님과 약속할 할 것이 딱 3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이곳은 우리보다 작은 동식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곳에서 크게 떠들거나 하면 친구들이 놀라겠죠? 오늘은 소곤소곤 조용히 다니며 탐험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연못은 물이 있는 곳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보다 먼저 가거나 뛰면 물에 빠질 수 있겠죠? 오늘은 특별히 더 안전에 신경쓰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맑고 깨끗한 연못에 쓰레기를 버리는 친구는 없겠죠? 쓰레기 버리지 않기~! 이렇게 아주 쉬운 세가지!! 꼭 지켜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탐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발짝 움직이며, 조끼를 입습니다.)
(파란색깔 부직포 조끼를 입고 밑에서부터 붙여가며 생물들을 설명한다)
와우~ 이제 물 가까이 왔는데요, 그럼 물 속에 누가 살고 있는지 살펴 볼까요? 우선 물 속 가장 아래 깊은 곳에는 땅위처럼 초록색 물속 식물들이 살고 있어요. 부들이 보이구요. 고마리, 그리고 돌 주위에는 이끼도 보이죠?
그렇다면 이 위에는 누가 살까요? 바로 물속 식물들을 먹고 사는 생물입니다. 바로 날도래, 강도래, 옆새우 같은 수서곤충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수서곤충들을 먹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붕어도 있고요, 피라미, 갈겨니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조용해 보이는 물속에서도 땅처럼 이렇게 작은 생물에서부터 큰 생물까지 먹이사슬을 통해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요. 이중에서 하나라도 없어지면 그 생물을 먹고 사는 다른 생물들도 사라져 버리겠죠?
어? 그런데 이 백양골 연못에는 특별히 친하기로 소문난 두 친구가 있다고 해서 각시붕어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우리한번 기자를 불러볼까요? 친구들이 불러주세요.
(각시붕어야~~나와라!!)
(부직포 조끼를 벗고 각시붕어 조끼? 여튼...변신...)
안녕하십니까? 백양골 연못에서 사는 각시붕어 기자 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사이좋은 말조개와 각시붕어이야기입니다. 각시붕어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살고 있는 한국 고유종으로 강과 저수지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물고기입니다. (사진자료)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등지느러미에서 꼬리지느러미까지 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알을 낳는 시기인 산란기가 되면 더욱 화려해 지는데, 수컷은 온몸이 알록달록 무지개빛으로 변하고, (사진자료)암컷은 누군가에게 알을 낳기 위해 빨대처럼 생긴 긴 산란관을 늘어뜨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암컷은 어디에 알을 낳을까요? 바로 오늘 화제가 된 말조개에게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사진자료)말조개에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구멍이 두 곳으로 있어서 각시붕어의 암컷이 알을 낳고 수컷이 정자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조개는 각시붕어가 어느 정도 자랄 때 까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대신 이 말조개는 각시붕어가 알을 낳을 때 어린 새끼들을

뿜어내 각시붕어 몸에 붙이는데 조개껍질 끝에 날카로운 갈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착착 붙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린 말조개들은 각시붕어의 몸에 붙어서 각시붕어가 먹다 흘리는 걸 받아먹기도 하고, 말조개 혼자서는 멀리 이동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여행하다 적당한 곳에 떨어져 나와 산다고 합니다. 함께 도우며 살고 있는 각시붕어와 말조개의 이야기, 정말 특별하고 훈훈한 이야기 였습니다. 이상 백양골 연못에 사는 각시붕어 기자 였습니다.
이지선 선생님 나와주세요~(조끼 벗어두기 등 변신 완료)

친구들! 각시붕어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조용해 보이는 연못안에 수많은 친구들이 살아가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 안에서 사이좋게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는 더 흥미롭죠? 이렇게 함께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사는 관계를 우리는 공생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속에는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공생관계인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백양골에 친구들과 함께 왔는데요, 누구나 소중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각시붕어와 말조개처럼 항상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할때에도 친구가 필요하고, 놀때도 필요하죠. 그럼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며 “친구야, 고마워, 너가 있어서 행복해” 라고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 우리 친구들 처음에 약속한 것처럼 안전사항도 잘 지켜주고 소곤소곤도 조용히도 잘 지켜주어서 선생님은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는 선생님이 없어도 아주 쉬운 세가지 약속 잘 지킬 수 있겠죠? 뭐였죠? (시간이 남으면...뭐였죠? 하고 한번더 되풀이 해줘도 좋아요.)
오늘 만난 각시붕어와 말조개말고도 백양골 연못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숲 안에도 더더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 이곳에 와서 자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것처럼 항상 친구의 소중함을 잊지않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